

##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RA **최윤희**  
02. 6098-6657  
yoonhee.choi@meritz.co.kr

###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 1. 전주 동향

##### 음식료

5월 첫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0.9% 상승. 원/달러 환율은 1,164.3원으로 상승. 곡물가는 옥수수(-5.1% WoW), 소맥(-3.0% WoW), 대두(-3.9% WoW), 원당(-2.4% WoW) 기록. 옥수수는 주간 미국 옥수수 수출 판매 실적이 예상 대비 부진한 가운데 브라질 Conab(곡물배급공사)가 18/19 자국 생산량 전망치를 전년 대비 18% 상향 조정하며 가격 전주 대비 약세. 소맥은 글로벌 소맥 재고량이 풍부한 상태 지속하며 UN FAO가 글로벌 소맥 생산량 전망치를 18/19시즌 대비 5% 상향 조정. 대두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되며 미국 주간 대두 수출 실적 부진한 점이 가격 압박. 원당은 영국 컨설턴스 Sudden은 글로벌 원당 시장의 18/19시즌 초과 공급 상황이 19/20시즌 공급 부족으로 전환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현재 과잉 공급 상황으로 인해 압박받고 있는 가격을 전환시키기에 제한적  
중국 라이신 제조업체 원재료 가격 부담이 가중되며 제조업체 생산 마진 압박 중, 가동률 상승 위헤선 수출이 핵심인 상황. 국내 수요가 매우 부진한 상태. Dongfang은 생산 재개 예정. 메티오닌은 4/10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착수되며 가격 10% 이상 급등. 위 3개국의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77%를 차지해 시장에 영향이 작지 않음. 단기간 중국 시장 메티오닌 공급은 타이트해지며 가격 강세 예상.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수급에 대한 영향은 미약해지며 안정화 전망. 외국 매체에 따르면 Novus가 메티오닌 공급 확장 계획을 마무리, 2020년까지 기존 개파 320,000톤/년 → 440,000톤/년으로 확대 결정. 쓰레오닌은 공급이 plum blossom, Yipin, Qifeng에 집중된 상황, 최근 미래 선수요 반영으로 상승했던 가격은 다시 하락 안정화된 추세. 트립토판 향후 생산 개파는 증가 예상되며 가격은 약세 안정화 전망  
국내 이벤트는 1(전자담배) 전자담배 줄의 맥스카트리지 "포드" 가격은 4,500원으로 예상 2(분유) 국내 유명 분유 케이스의 안전 캠페인 녹가루 발생 3(돼지열병) 美최대 육가공업체 대표 "아프리카돼지열병, 미국확산 우려 4. (동원산업) "美 현지 담합 관련 피소에서 추가합의 완료" 5. (주유) 기재부는 이달 초 공개하기로 한 주유세 개편안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 2. 급주 전망

##### 음식료 섹터 의견 Overweight 유지, 1Q19 실적발표 중 대형주 부진, 중소형주 호조세. 음식료 전반적인 1Q19 실적을 전년 대비, 시장권선 대비 저점으로 판단

1Q19 실적흐름 종목별로 상이 대형주는 KTNG, 오리는, CJ제일제당 순서로 선호, KTNG 실적발표로 숫자는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내용측면에서 긍정적. 수출은 0.7% 감소로 방어했으며 5월말 예정이 경쟁제품 줄 대응 신제품은 준비 완료 단계. 10만원 초반 추가에서 배당수익률 매력 부가 예상. 오리는은 낮아진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 1-2월은 전년도 높은 베이스효과로 부진 3월은 증치세 이슈로 수요 이전 4월은 두 자리 수 이상 증가세로 예상. 1분기 보다는 QoQ로 분위기가 개선되는 2분기 실적에 관심 이전. CJ제일제당은 컨센 하회 예상, 해외바이오 가격 하락과 가공식품 원가부담, 전천공장 초기 수익성 부진 때문. 2분기 쉬완스 실적이 본격 적용되는 시점이 추가 상승 트리거가 될 전망. 중형주는 CJ프레시웨이, 하이트진로, 삼양식품, 매일유업, 대 상 선호.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유통 가격 인상효과 지속, 급식 신규수주 효과로 19년 연간 매출액/영업이익 성장 흐름 지속. 식재유통 가격 인상으로 구조조적인 헤게모니 강화 판단. 하이트진로 신제품 테라 첫 달 판매량 3,200만 병 달성. 필라이트 첫 달 16만 상자, 하이트 펄링 370만 상자 대비 우수한 초기 성과. 온라인 채널에서의 소비자 반응 및 관심도 지속 확대 중. 5월 중 발표될 주세개편안과 하반기 기대되는 가격인상 가능성은 추가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판단. 삼양식품은 중국 오프라인 채널 주요도시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불닭볶음면 입점 양호한 상황. 3-4월 유메이 수출 물량 본격 증가 예상. 매일유업 분유 수출 두 자리 수 지속 및 19년은 국내 조제분유 매출 감소분을 수출 증가로 상쇄 예상. 대상은 베스트코 흡수 합병 효과와 국내 판매비 관리 효과로 실적 성장흐름 이어질 전망

####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 관심종목

##### 삼양식품 (003230)

수출 라면은 중국의 전년 낮은 베이스 효과와 동남아 수출 고성장세 지속하며 양호한 성장 흐름 예상. 반면 국내 라면 1Q18 까르보불닭 제품의 판매 호조로 높은 기저 부담 존재. 1Q19 실적의 20-30억원 역성장 요인. 수출 라면 19.3월 이후 매출 호조세로 전환된 점, 국내 소스류 신제품 출시를 통한 실적 회복 진행되는 점은 긍정적. 1Q19 수출 라면 부문은 시장 우려 대비 양호한 실적 예상. 1) 중국 라면 수출의 전년 낮은 베이스 효과, 2) 동남아 수출 15-20% 성장세 지속, 3) 일회성 비용 등의 특별한 비용 발생 이슈 없다는 점이 근거. 국내라면은 1Q19 전년 동기 높은 기저 부담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 존재. 1Q19 까르보불닭 매출 80억원(vs. 1Q18 매출 200억원) 예상되는 점이 주요. 전년 동기 까르보불닭의 이례적인 판매 호조로 4+1, 5+1 등의 판촉

##### 동원산업 (006040)

1Q19 수산부문 실적은 전년 대비 우호적인 어획량 달성하며(2월 어획량 역대 최고치) 부진한 어가 환경 만회 가능 예상. 19.4월 어가 환경도 긍정적 흐름 지속. 유통부문은 스타키스트의 소송 이슈 외에 특이 사항 없다고 판단. 월마트와의 민사 소송 합의 이후 미국 메이저 유통업체와의 합의 및 고소 취하 추세. 물류는 원활한 사업 진행으로 전년 대비 긍정적 실적 흐름 예상. 2Q19 이후 동원냉장 합병과 저온 보관 창고 업체 BIDD 인수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5월 1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5월 1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5월 1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최윤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